

# 디지털 플랫폼으로 수출 개척 코트라, 中企 해외진출 돕는다

중소 플랫폼 활용 실태 분석 결과 866만명 '해외경제정보드림' 이용 '트라이빅' 바이어 조회 5185개사 수출 초보기업도 온라인 무역 활용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 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일 지난해 진행했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수출 성공사례 공모전 결과와 함께 중소기업의 플랫폼 활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 결과 지난해 기업들은 코트라의 통합 정보 포털 '해외경제정보드림(헤드림)'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트라이빅(TriBIG)'을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에 이뤄냈다.

특히 헤드림과 트라이빅으로 시장 트렌드와 바이어 정보를 알아내고, 무역관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출에 성공한 '디지털-현장 융합형' 해외진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냉각 설비와 장비를 생산해 판매 중인 A사의 경우 헤드림에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해 호주를 진출 목표로 선정하고 트라이빅의 바이어 탐색 기능을 활용해 원하는 바이어를 찾아냈다.

이후 코트라 멜버른무역관 도움으로 플랫폼이 찾아준 호주 바이어와 직접 접촉했으며, 결국 9만5000달러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같은 바이어와 총 100만달러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14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트라

규모의 양해각서도 체결해 향후 더 많은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

수출경험이 많지 않았던 K-뷰티 전문기업 B사도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력과 코트라 무역관 지원에 힘입어 해외진출에 성공한 케이스다.

B사는 헤드림의 '수출로드맵' 서비스와 '상품DB'를 활용해 부족한 정보력을 보완한 다음, 헤드림이 추천하는 코트라 창춘무역관 지원사업에 참가해 중국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창춘무역관과 함께 거래선을 개척, 자사 뷰티 제품을 현지에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헤드림을 방문해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는 866만명으로 확인됐고, 트라이빅의 바이어 조회 서비스 이용 기업도 5185개사에 이르는 등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폭넓

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처럼 해외진출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재개한 기업 297개사가 트라이빅의 바이어 추천 서비스를 받았고, 평균 연 수출 1만달러 이하 '수출초보기업' 432개사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발히 이용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훈 코트라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장 동향과 바이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 현장 조직인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실제 성약을 이끌어내는 '디지털-현장 융복합 지원'이 공사가 추구하는 최종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국립공원공단

### 지리산 등 국립공원서 내륙습지 18곳 추가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내륙습지 18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다양한 지형분석 자료를 활용해 습지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신규 습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로 국립공원 내 습지는 기존 54곳에서 72곳으로 증가했다. 새롭게 발견된 습지 대부분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지대의 급경사지 또는 폐경지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는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오염 정화 기능을 수행하며,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난 생태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침엽수림 토양보다 약 1.8배 많은 탄소를 비축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발견된 습지를 포함해 총 72곳(면적 74만2086㎡)의 습지에 대해 연말까지 육화-건조화 진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고효율 가전 구매 취약계층 환급비율 30% 확대 나선다

산업부, 17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식기세척기 추가 총 11개 품목 지원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비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 올해 예산은 125억원 규모로, 3일 한국전력 고효율가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이 게시되며, 1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환급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3자녀 이상,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대가족 등 나중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지원한다.

환급대상 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서울 중구 롯데하이마트 서울역점에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가전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기가와트시(GWh)의 에너지 절감(4인 가구 1633가구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하도급법' 위반한 KG모빌리티 시정명령

공정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적발  
KG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KG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 ~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며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판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

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이달 멸종위기 야생동물 '흑두루미'

IUCN, 취약 등급으로 지정

환경부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는 몸길이 약 100cm, 몸무게는 수컷 3~5kg, 암컷 3kg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두루미류 중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과 이마, 머리 꼭대기에 깃털이 없어 붉은색 피부가 드러나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이 특징으로 인해 영어로는 '후드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검은 몸빛을 본떠 '흑두루미'라고 명명됐다.

흑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지로 이동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순천만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며, 이외에도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관찰된다. 번식지에서는 어류와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류(berry) 열매 등 식물성 먹이를 함께 섭취하지만, 월동지에서는



흑두루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벼를 비롯한 낱알과 식물의 줄기·뿌리를 주로 먹는다.

흑두루미는 사회성이 강한 조류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한다. 한 마리가 '쿠루루' 하는 경계음을 내면, 무리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 집단적 안전 행동을 보인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000~1만5000마리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IUCN은 흑두루미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 반려동물 질병치료제 등 신약개발 지원 박차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담 심사팀 운영

반려동물 질병치료제 등 동물약품 신약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신약허가 기술검토를 전담하는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동물약품 업계의 신약 개발 및 허가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신약 전담 심사팀은 연간 역대 최고인 7건의 신약 허가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허가 건수(3.5건)의 2배에 달하고, 2019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전담팀 운영 이후 개·고양이 당뇨병, 골관절염 등 반려동물의 만성 질환 치료와 증상완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제품이 허가됐다. 산업동물용인 꿀벌 질병 관련 신약 1건도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동물약품 업계는 신약 허가를 받고 싶어도 신약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해 자체적으로 허가 심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검역본부는 전담 심사 체계를 마련해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과 심사·허가까지 전 과정에서 업체가 불필요한 시험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허가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지난해 동물용 신약 허가 실적은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허가 속도를 개선하고 심사 과정에서 업체와 활발히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용 신약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 승인, 허가심사까지의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